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보도시점 2023. 11. 7.(화) 06:00
< 11.7.(화) 석간 >

배포 2023. 11. 6.(월)

조선업 생산인력 14,359명 투입되었다

- 3분기까지 올해 수급목표(14,000명) 이상 총원 완료
- 향후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체계 구축에 총력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총원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하였다.

*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23년 108.8억원) :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금 지원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분기(신청 기준)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중소 조선업체에 총원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정부는 연수형 E-7 비자*, 유학생 취업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업계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입국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근무 현황, 기업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9월부터 현대미포조선에서 베트남 인력 25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담당 부서 <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문형태 (044-203-4333)
담당 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2110-4070)
		담당자	사무관	손흥기 (02-2110-4067)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44-202-7148)

대한민국
지척브리핑